



즉시 배포용: 2019년 12월 12일

ANDREW M. CUOMO 주지사

CUOMO 주지사, 유한 책임 회사의 임금 착취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하는 법안에 서명
새로운 법률, 외국 및 국내 유한 책임 회사가 직원의 미지급 임금에 대해 책임을 지도록
보장

2017년 주지사의 시정 방침 연설에서 주지사가 제안한 법안

Cuomo: "이 조치는 특정 회사가 현재 임금 착취 관련법을 피하기 위해 복잡한 기업 구조를 오랫동안 숨길 수 있도록 한 허점을 차단합니다."

Andrew M. Cuomo 주지사는 오늘 직원과 그들의 임금을 보호하기 위해 유한 책임 회사법을 개정하는 법안(S.2734/A.453)에 서명했습니다. 이 법안은 외국 또는 국내의 모든 유한 책임 회사의 가장 큰 소유권을 가진 10명의 소유주가 직원의 미지불된 임금에 대해 책임을 지도록 하는 법률을 분명하게 명시합니다. 이 법안은 2017년 주지사의 시정 방침 연설에서 주지사가 제안한 법안입니다.

Cuomo 주지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. "우리는 노동자를 착취하고 근로자가 힘들게 번 임금을 착취하는 어떤 기업도 절대 용납하지 않습니다. 이 조치는 특정 회사가 현재 임금 착취 관련법을 피하기 위해 복잡한 기업 구조를 오랫동안 숨길 수 있도록 한 허점을 차단합니다."

James Skoufis 상원 의원은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. "뉴욕주의 근면한 직원들은 더 이상 그들이 합법적으로 벌어들인 임금을 지불할 책임을 회피하려는 특정 회사들에 의해 착취되지 않을 것입니다. 모든 유한 책임 회사가 동일한 표준을 준수하도록 보장함으로써 우리는 뉴욕의 근로자를 보호하는 데 중요한 조치를 취했으며, 이 법안에 서명해 주신 주지사에게 감사드립니다."

Phil Steck 의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. "기업은 직원들이 수행한 업무에 대해 비용을 지불해야 할 의무가 있으며, 뉴욕 주민들을 상대로 사기 행위를 벌이는 파렴치한 회사들은 용납할 수 없습니다. 뉴욕 주민들은 돈을 벌기 위해 열심히 일하고 있으며, 이 법은 그들이 번 모든 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보장합니다. 그래서 저는 의회에서 이 법안에 후원하는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."

뉴욕주는 모든 근로자가 공정한 대우를 받고 정당한 임금을 모두 받을 수 있도록 계속해서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. 2011년 Cuomo 주지사가 취임한 후, 주 정부는 거의 3억 달러에 달하는 착취당한 임금을 회수하여 280,000명 이상의 근로자에게 돌려주었습니다.

이 법안은 60일 후 발효될 예정입니다.

###

다음 웹사이트에 더 많은 뉴스가 있습니다 www.governor.ny.gov
뉴욕주 | Executive Chamber | press.office@exec.ny.gov | 518.474.8418

[구독 취소](#)